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창간호 (2013. 1) pp. 13~22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first issue (Jan, 2013)

치위생전공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신보람[1], 배성숙[1†], 장종화[1], 김숙향[1]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구강보건학과, [1]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s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Bo-ram Shin, Sung-Suk Bae[1†], Jong-Hwa Jang[1], Suk-Hyang Kim[1]
Department of Clinical Oral Health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Clinical Dentistr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58-710, Korea, 1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nseo University Chungnam 356-706, Korea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dental hygiene students' career identity and self-worth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areer identity and self-esteem.

Method: Data were obtained from a cross-sectional survey of 160 dental hygiene students.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recruited when they attended 4 Dept. of dental hygiene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 from March 24 through to May 31, 2010. Career identity was measured by the 18-items and self-esteem was measured by the 10-items. The data was analysed with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 There were different results of self-esteem according to each subject's satisfaction of their major, major satisfaction and age, but the result of career identity self-worse did not have much difference according to age, satisfaction of major, desired work plac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self-worse has a high correlation(r=0.266).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find out elements to influence dental hygiene students' career identity and self-worse and develop a program that can improve student's career identity and self-worse based on the result of the above research.

Key words : dental hygiene students. self-esteem. career identity
색 인 : 치위생학생,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교신저자: 배성숙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
Tel: 041-660-1573, Fax: 041-660-1579, E-Mail: ssbae@hanseo.ac.kr
투고일자: 2012. 07. 30. 심사일자: 2012. 07. 31. 게제확정일자: 2012. 11. 19.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정체감, 인생관, 사회적 가치관 등의 확립과 진리탐구 및 교양교육을 통해 보다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사회적 위치를 정립하는 시기이다[1]. 즉 이때는 가치를 명료화하고 야망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인생계획을 세우는 시기로서 성숙, 친밀성, 정체성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2]. 진로정체감이란 진로에 대한 건강한 자기 확신 정도를 말하며,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및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었느냐를 의미한다. 이것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고, 환경적인 모호함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도 관련이 깊다[3].

진로정체감 확립은 대학 생활적응도를 높여 진로발달과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4]. 그러나 치위생(학)전공 대학생의 경우, 직업 선택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며, 대학 졸업 후 비교적 취업률도 높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고 일부 치위생(학)과 교수는 진로지도에 있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보다는 해당기관의 채용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경우도 있어5), 뚜렷하지 못한 진로정체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낮은 진로정체감은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가져올 수 있고, 졸업 후 직업 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 정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시각으로서, 희망과 성장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자아존중감은 어려서부터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받으며 형성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수용과 인정으로부터 형성 된다[6].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바람직한 지도자가 되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전반적인 삶의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타인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7]. 최근 진로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각 대학의 학생문제 진단연구[8]에서는, 대학생들은 진로 및 장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의 생활상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한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발전적인 진로 개발을 위해 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건의료전문인으로 활동 할 치위생(학)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을 연구, 조사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가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개발 및 대학생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치위생(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파악한다.
- 치위생(학)전공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파악한다.
- 치위생(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Holland[3]등이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의 하위 척도인 진로정체감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1.3.2. 자아존중감

자아 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느낌, 감정, 동기, 가치관, 인지 등이 개인의 심리현상 속에서 수용되고 조직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하여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Rosenberg[9]가 개발했던 자아존중감 연구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치위생(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고 치위생(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조사자의 편의에 따라 H대학교, K대학, D대학, B대학의 3,4학년 치위생(학)과 학생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협조를 수락한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자료 수집은 2010년 5월 24일에서 5월 31일까지 연구자 및 각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의 협조를 얻어 강의실에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160부로 응답이 충실하지 않는 14부를 제외한 총 146부(91%)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로는 진로정체감 측정을 위하여 Holland3)등이 개발한 것을 김10)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측정하여 역환산하여 평균점수를 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는 김[10]의 연구에서 0.89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0.89였다.

다음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9]가 개발한 Self Esteem Scale(SES)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은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Duncan's multiple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개발 당시에는 0.85이었고 본 조사에서는 0.80으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정체감, 자아 존중감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은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Duncan's multiple analysis를 시행하였다.
3) 대상자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 중 99.3%가 여학생이었으며, 연령은 21~25세가 87.0%를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는 99.3%가 미혼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전체의 55.2%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35.6%를 차지하였고, 재수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전체의 88.4%를 차지하였다. 전공분야에 대한 학습만족도는 55.5%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94.5%를 차지하였으며 취업 희망지는 소규모의 개인병의원이 35.2%를 차지하였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성	남자	1	0.7
	여자	145	99.3
연령	≦20세	4	2.7
	21~25세	127	87.0
	≧26세	15	10.3
결혼여부	미혼	145	99.3
	기혼	1	0.7
종교형태	불교	14	9.7
	기독교	41	28.3
	천주교	1	6.9
	무교	80	55.2
주거형태	자가	46	31.5
	자취	47	32.2
	기숙사	52	35.6
	기타	1	0.7
재수경험	있다	17	11.6
	없다	129	88.4
전공만족도	만족	81	55.5
	보통	56	38.4
	불만족	9	6.2
동아리활동	한다	8	5.5
	안한다	138	94.5
희망근무지	종합,대학병원	44	30.3
	보건소	31	21.4
	개인병의원	51	35.2
	대학원진학	13	9.0
	기타	6	4.1

3.2. 치위생전공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정도

진로정체감의 최대점수는 4점에서 평균 2.49±0.42로 중등도의 수준이었고, 자아존중감 역시 최대점수는 4점에서 평균은 2.87±0.33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정도

특성	N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진로정체감	146	1.44	4.00	2.49±0.42
자아존중감	146	1.90	3.60	2.87±0.3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진로정체감은 26세 이상에서 2.79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1). 진로정체감은 전공만족도에 따라서 보통과 불만족 군에서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보통과 불만족 한다는 군보다 만족한다는 군이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한 진로정체감은 희망근무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군에서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

특성	분류	N	진로정체감 (평균±표준편차)	P값
연령	≦20세	4	2.45±0.45a)	
	21~25세	127	2.45±0.39a)	0.011*
	≧26세	15	2.79±0.51b)	
재수경험	있다	17	2.54±0.51	0.603
	없다	129	2.48±0.41	
주거형태	자가	46	2.46±0.46	
	자취	47	2.46±0.39	0.583
	기숙사	52	2.54±0.42	
	기타	1	2.11±0.00	
전공만족도	만족	81	2.60±0.40a)	
	보통	56	2.34±0.37b)	0.001*
	불만족	9	2.31±0.58b)	
동아리활동	한다	8	2.53±0.33	0.788
	안한다	138	2.48±0.42	
희망근무지	종합,대학병원	44	2.53±0.38	
	보건소	31	2.41±0.39	
	개인병의원	51	2.44±0.42	0.209
	대학원진학	13	2.70±0.56	
	기타	6	2.40±0.44	

*P<0.05 by T-test or One-way ANOVA at α=0.05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으나 연령에 따른 결과로 21~25세보다 26세 이상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재수경험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으나 재수경험이 없는 것보다 재수경험이 있는 군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동아리 활동을 안 한다는 군보다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군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근무지에 따라서도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대학병원, 보건소, 개인병의원 보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군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표 4>).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특성	분류	N	자아존중감 (평균±표준편차)	P값
연령	≦20세	4	2.89±0.09	
	21~25세	127	2.86±0.33	0.848
	≧26세	15	2.92±0.37	
재수경험	있다	17	2.93±0.22	0.062
	없다	129	2.86±0.35	
주거형태	자가	46	2.79±0.38	
	자취	47	2.95±0.32	0.125
	기숙사	52	2.88±0.29	
	기타	1	2.70±0.00	
전공만족도	만족	81	2.88±0.32	
	보통	56	2.85±0.34	0.727
	불만족	9	2.94±0.48	
동아리활동	한다	8	3.02±0.35	0.504
	안 한다	138	2.86±0.33	
희망근무지	종합·대학병원	44	2.88±0.34	
	보건소	31	2.86±0.31	
	개인병의원	51	2.82±0.33	0.319
	대학원 진학	13	2.94±0.30	
	기타	6	3.10±0.50	

by t-test or One-way ANOVA test at α=0.05

3.5. 대상자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0.266).

<표 5> 대상자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특성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0.266**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4. 고 찰

치위생(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학생들이긴 하지만,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자기확신 정도는 향후 직업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알아본 결과 연령과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만 26세 이상 연령에서 진로정체감이 2.79±0.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p=0.011).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도 2.60±0.40점(p<0.001)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희망근무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군에서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조희와 이규형[5]의 연구에 있어서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대학원 진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선택 및 직업선택에 대한 자기확신 및 자기이해가 뚜렷하고 동기가 뚜렷한 학생일수록 높은 진로정체감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치위생(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진로수준 향상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평균평점은 2.49점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김명아 등[11]의 간호대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 정도는 2.87점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과 경기지역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전 학년 320명을 대상으로 한 이선영[1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진로결정 점수가 2.85점,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2.69점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조희와 이규형[5]의 연구에서의 진로정체감 평균평점은 2.67점이었고, 최은희[13]의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 조사에서도 평균 31.90±5.92로 나타났으며, 권경남과 최은희[14]의 연구인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 영향요인 연구에서의 진로정체감은 평균 31.79±5.7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의 진로정체감 점수가 평균 2.49점으로, 간호대 학생을 연구한 김명아 등[11]의 연구 평균 2.87점 보다 낮고, 타 일반대학생들을 연구한 이선영[12]의 연구 중 자존감이 낮은 학생의 평점인 2.69점의 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조희와 이규형1의 연구 결과 2.67점, 최은희[13]의 연구 결과 31.90±5.92, 권경남과 최은희[14]의 연구결과 31.79±5.78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며 치위생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현실적인 직업관 인지 등 직업정체성에 대한 준비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치위생전공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2.87점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으나, 연령에 따른 결과로 21~25세(2.86±.33)보다 26세 이상(2.92±0.37,)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p>0.05). 조희와 이규형[5]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24세~25세 이상(2.86±.44)에서부터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는데(p<0.000), 이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초반의 학생들보다 사회생활을 경험하거나 혹은 직업전환을 위하여 전

공을 선택한 사람들의 그룹인 24세~25세 이상의 학생들에서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입학 후 전공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본 연구에서는 만족(2.88±.32)과 보통(2.85±.34)인 학생들보다 불만족(2.94±.48)하다는 학생들에게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나(p=.727),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조희와 이규형[5]의 연구결과에서는 매우 만족한다(3.45±.41)는 학생들이 그저 그렇다(3.35±.41), 불만족스럽다(3.31±.33)는 학생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 입학 후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p=.04). 희망근무지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대학·종합병원(2.88±.34), 보건소(2.86±.31), 개인병·의원(2.82±.33)을 희망하는 학생들 보다 대학원 진학(2.94±.30)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p=.209), 조희와 이규형[5]의 연구결과에서는 종합병·의원(3.38±.39), 공무원(3.31±.47), 산업장간호사(3.34±.32)보다 외국간호사(3.44±.41)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43),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의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보다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보고하였다[15-17].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이 높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지각과 판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없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18-20]. Shrauger와, Terbovic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는가하는 것은 심리적 기능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하였다[21]. 김경연[22]은 일반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적응수준을 의미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Kaluger G와 Kaluger MF[23], Mussen 등[24]의 저서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키고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반이 되며, 성취에도 영향을 미쳐 높은 자아존중감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을 때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연결되며,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도 높게 나타나 r=0.266으로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조희와 이규형[5]의 선행연구에서는 r=0.316으로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이선영[12], 김명아 등[1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특히 김명아 등[1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선영[12]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높은 진로결정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능력 향상 및 자기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상호작용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상황적 변인으로 작용하는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진로결정과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아존중감의 증진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이미 선택한 신입 치위생전공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신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는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조사자 편의에 따른 4곳의 치위생(학)과 3, 4학년 160명의 치위생전공 학생을 임의표집 하였으며 소수의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의 주관적 보고에만 의존하였으므로 이를 객관화하고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아존중감 향상이 필요하며, 치위생(학)

과에 들어온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아증진 및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정확한 진로정보 제공과 보건의료 전문직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직업관 확립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이 입학 후 만족감을 추구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치위생학 정규 교육과정에 자아존중 향상 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치과위생사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이론수업 및 현장체험 등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치위생전공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4개 대학의 치위생(학)과 3,4학년에 재학중인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충실하지 않는 1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4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치위생전공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위하여 Holland 등[3]이 개발하고 김봉환[10]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9]가 개발한 Self Esteem Scale(SES)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진로정체감의 총문항 평균은 2.49±0.42이었으며, 자아존중감 총문항 평균은 2.87±0.33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은 백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진로정체감은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6세 이상에서 진로정체감이 높았다(P=0.011). 전공만족도에 따라서 보통과 불만족 군에서는 서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군이 진로정체감이 더 높았다(P=<0.001).
2)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으나 21세에서 25세보다 26세 이상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재수경험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으나 재수경험이 없는 것보다 재수경험이 있는 군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동아리 활동을 안 한다는 군보다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군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근무지에 따라서도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종합·대학병원, 보건소, 개인병·의원 보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군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P>0.05).
3)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66).

위의 연구결과로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은 양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에게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6. 참고문헌

1. 김정숙. 현실요법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내적 통제성,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2000;9(2):209-219. [KCI등재]
2. 권미경, 김남선, 김혜원. 대학생과 건강관리. 서울: 현문사;1998:145-149.
3. Holland, John L, Daiger, Denise C, Power, Paul G.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0:164-184.

4. 황매향, 박혜영.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 도와의 관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8(2):157-176. [KCI등재]
5. 조희, 이규영.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6;20(2):163-173.
6. Eiiis LS. An investigation of nursing students self-concept.levels. Nur Reserch 1980;29(6):389-390.
7. 이화인, 이홍자. 일부 간호전문대학생의 자존심과 자존감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경인논집 1996;5:269-288.
8. Students Guidance and Counseling Cente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ngsim Campus. Jou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1990.
9. Rosenberg M. Self 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self ed by Robert L. Leahy. Academic press : New York 1985:205-246.
10.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1997.
11. 김명아, 임지영, 김숙영, 김은정, 이종은 외 1인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04;13(4):383-391.
12. 이선영.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2004.
13. 최은희.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9;15(1):15-21.[KCI등재]
14. 권경남, 최은희.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10;24.(1):19-28.[KCI등재]
15. 최미숙.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공주: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1994.
16. 김현숙.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진주: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1996.
17. 최은영, 최인령.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2;15(1):63-72.[KCI등재]
18. Coopersmith, Stanley.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Freeman;1967:283.
19. Kaplan, Howard B.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 Academic Press: 1980:231-241.
20. 김창덕, 오경옥, 김태숙. 한국과 중국 간호학생의 정신건강, 스트레스 및 대응방법 비교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08;17(1):75-84
21. Shrauger, J. Sidney; Terbovic, Melanie L. Self-evaluation and assessments of performance by self and 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6;44(4):564-572.
22. 김경연.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박사학위논문]. 부산:부산대학교;1987.
23. Kaluger G, Kaluger MF. Human Development The Span of Life. 2nd ed. Saint Louis: Mosby:1979:28-29.
24. Mussen PH, Conger JJ, Kagan J.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5th ed. New York: Harper& Row;1979:224-228.